

국제석유시장은 안정될 것인가



계 덕 남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장〉

동작 날썬 OPEC - 150만b/d 감산결정

지난 1월 17일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지금까지 증산위주의 생산정책에서 180도 태도를 바꾸어 하루 150만배럴의 원유생산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기 감산 결정으로 지난 1월 평균 22.85\$/B에 그쳤던 두바이 유가는 최근 27불선을 위협하는 등 배럴당 3불 이상의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작년의 OPEC의 증산정책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의 감산정책과는 여러 가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시기적으로 보다 빠른 감산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수요 감소로 시장에서 낮은 가격이 굳어진 다음에 감산을 결정할 경우 감산의 효력이 저하된다고 판단, 수요 감소 이전에 미리 감산함으로써 감산의 효력을 배가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작년 증산을 결정할 때에는 감산 결정과 달리 시기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 즉, 항상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 시장의 가격이 팽창할 대로 팽창하여 높은 가격이 성립되어 굳어진 상태에서 증산을 단행함으로써 유가하락을 예방하는 전술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OPEC는 증산과 감산사이를 시의 적절하게 오가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유가 Band(22-28\$/B)를 높은 쪽으로 유도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동안 OPEC의 행동이 통일된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1999부터 2001년 초까지의 감산 → 증산 → 감산을 순환하는 과정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OPEC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생산카르텔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는 시장에서 분열하는 OPEC의 이미지를 청산하고 그들이 합의하는 사항이 시장에서 지켜진다는 사실을 물리적으로 거듭하여 입증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키워온 것이다.

카르텔에서의 이탈은 회원들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다.

과거 1,2차 Oil Shock 때와 같은 몇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OPEC는 그 단결력에 대해 시장에서 의심을 받아왔었다. 일부 회원국들이 총회에서 결정된 자국의 생산쿼터를 위반함으로써 공급과잉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합의사항 위반은 곧바로 치명적 시장붕괴를 자

초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98년/99년 단행된 감산결정과 이 결정에 전 회원국들이 뜻을 같이하고 합의사항을 준수한 결과 이제 석유시장에서의 OPEC 신뢰도는 그야말로 높아졌다. OPEC의 신뢰도 회복으로 인해 지난해의 경우 총 4차례에 걸쳐 무려 370만b/d 상당의 증산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전년대비 무려 평균 10\$ 상당의 가격상승효과를 거두어 증산이 바로 시장가격 하락이라는 개념을 깨끗이 씻어내었다.

시장원리에서는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은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지만 수요보다 항상 적게 생산을 확대하면서 성수기 도래시기보다 늦게 생산을 증가시켜서 시장의 반응을 의도하는 대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구소련의 체제붕괴와 그와 이어지는 PAX Americana가 점차 세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동의 화약고는 그 폭발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걸프전이나 이란-이라크전쟁같은 대규모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OPEC는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들이 지상목표로 하는 석유자원을 이용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정치적으로는 과거 냉전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아랍 민족주의와 반이스라엘 기치를 드는 비교적 단순한 노선을 추구함으로써 단결력과 동시에 정치력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여건이 비교적 단순화되고 석유시장이 점차 시장논리에 적용하여 나감에 따라 석유자원의 정치적 무기화는 보다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그들(OPEC)이 추구하는 석유가격의 고가격화는 일단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영향력도 경제력이 증대되는 만큼 강화되고 있어 지난 2년여에 걸친 OPEC의 만족도는 그 기대만큼을 얻었다고 보여진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예견되기는 했으나, 일반의 생각을 뛰어 넘는 150만b/d의 생산감축을 일사천리로 결정함으로써 시장에 놀라움을 던져주었다. 일반적 관측은 하루 100배럴정도의 감산결정을 생각하여 왔으나, 감산

규모가 당초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데다 감산결정에 소요된 시간도 회의를 시작되자마자 하루만에 나온 것이어서 비교적 안정되어 가는 석유시장에 다소 충격을 안겨주었다.

IEA 세계 석유수급 전망

(단위 : 백만b/d)

구 분	2000 (A)	2001					평균 (B)	증감 (B-A)
		1/4	2/4	3/4	4/4			
수요	OECD	47.8	49.0	46.8	48.2	50.1	48.6	0.8
	비OECD	27.8	28.3	28.6	28.7	29.2	28.7	0.9
	계	75.6	77.4	75.4	76.9	79.3	77.3	1.7
공급	비OPEC	45.9	46.9	46.6	46.5	47.2	46.8	0.9
	OPEC							
	NGL	2.9	3.0	3.0	3.0	3.0	3.0	0.1
	OPEC 원유생산	27.9	27.8	27.9	27.9	27.9	27.9	-
공급과부족	76.7	77.7	77.5	77.4	78.1	77.6	0.9	
공급과부족	+1.1	+0.3	+2.1	+0.5	-1.2	+0.3		

주1) OPEC 원유 생산량은 2월부터 150만b/d감산 기준
 주2) 이라크 산유량은 1분기 220만b/d, 2분기이후 270만b/d 가정

상기 감산물량(150만b/d)은 소비국 모임인 IEA의 추계에 따르면 2001년도 1/4분기의 수급을 빠듯한 균형상태로 가져가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란, 알제리 등은 200만b/d 감산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내지 온건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말았지만, 150만b/d 감산규모도 적은 규모가 아님은 분명하다.

여하튼간에, OPEC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포만된 만족감에서 그들이 추구하여 온 정치적, 경제적 입지를 보다 강화하고 넓혀 나가기 위하여 “생산량 조절”이라는 수단을 계속하여 사용하여 나갈 태세임에는 틀림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의 OPEC 총회는 다시금 OPEC의 유가정책과 생산정책을 되짚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가까이 오는 3월 총회에서 OPEC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2001년

도의 국제석유시장은 어떤 방향을 그려나갈 지 살펴보기로 하자.

고유가는 OPEC를 황폐시킨다.

국제석유시장에서 OPEC의 영향력은 지난 2년 동안의 발자취를 살펴볼 때에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들의 행동이 지금과 같이 조금의 균열 없이 진행할 것인지가 궁금해진다.

구소련의 붕괴이후 가장 큰 변화는 이라크, 알제리, 리비아 등 과거 친소적이고도 반미적인 국가들이 힘의 공백에 놓여 그 목소리가 다소 낮아져 친미성향의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에 놀리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주의적 아랍민족주의를 표방하여 석유부(石油富)를 앞세운 정치력의 증대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정치적 영향력 보다는 경제적 입지강화에 보다 무게를 두는 쪽을 택해야 하는 선택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富를 무한대로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현재의 25\$ 내외의 시장가치를 지니고 있는 석유자원은 에너지원으로서나 화학산업의 원료용으로서 다른 재화에 비해 비교우위재화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석탄, 가스, 원자력 또는 태양열들에 자리를 내어줄 수 대체재 내지는 보완재라는 점에서 가격경쟁력은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OPEC의 한계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근년 들어 고유가에 힘입어 한계유전의 확대와 신규유전의 증가 등이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부시 미국대통령의 당선은 환경문제 등에 부딪혀 개발이 유보되어 있는 알라스카의 북극해 지역개발과 러시아 툰드라지역 개발 등을 예고해 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OPEC 공급권역이 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대두되는 것이다.

석유자원의 개발은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이 합쳐

서 성사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OPEC의 독자적인 자본과 기술로서는 지구상의 유전을 독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범위는 중동 페르시아만과 북아프리카 등의 영토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개발이 미진한 북극해, 심해저, 산간오지 등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메이저 석유 기업들의 무대가 될 것이 틀림없다.

금년만 보더라도 비OPEC 국가들의 생산증대 규모가 하루 100만배럴을 넘어서고 있고 수요는 고유가의 영향을 받아 150만b/d 내외에 그칠 전망이어서 OPEC의 영향력은 작년보다 근원적으로 줄어들 소지를 안고 있다. 물론, 이와 달리 만약 늘어나는 소비량(150만b/d 상당)을 전부 OPEC에서 조달해야 된다고 한다면 OPEC의 영향력은 그만큼 커지게 되겠지만 주변상황을 살펴볼 때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유가가 오를수록 공급력이 OPEC 외부에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때 어느 면에서 고유가는 오히려 OPEC를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주장하는 25\$선의 유가목표는 유가 Band제에서 제시된 가격(22-28\$)의 중간 수준으로 일반성을 갖는 동시에 시장성이나 경쟁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논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정치, 외교적 구도로 보더라도 미국의 부시대통령의 등장, 샤론 이스라엘 수상 당선이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수주의의 미국 공화당정권은 보호하여야 할 미국의 이익을 석유공급원의 안정에서 찾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힘에 밀리는 중동정책보다는 확실한 우위를 바탕으로 이라크, 이란 등에 대한 고삐를 활용할 것이다. 중동긴장의 조장 면에서 이스라엘 샤론 수상의 등장은 강한 이스라엘 민족감정을 자극시켜 對팔레스타인 평화협상에 어려움이 가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중동정세의 긴장을 보다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국제유가를 자극하고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팔 간의 분쟁은 중동평화를 근원적으로 위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샤론 수상이 제3의 석유위

가를 가져올 모험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제3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OPEC도 군사적, 경제적 승리를 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힘의 3각 구도가 상호 공존하는 형태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된다.

OPEC 내부에서 모든 결정의 틀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라크의 경우를 보면, 최근의 수출이 부진하여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여 왔다. 더욱이 가격의 인상과(별도의 40센트/B 프리미엄요구) 선적금지조치 등으로 일시적 시장충격을 주고는 있으나, Bush 2세 대통령의 등장은 1990년 걸프전 패배에 대한 무조건(?) 항복의 쓴맛을 다시 볼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전후 복구와 식량, 의약품 등의 대외의존은 석유를 팔지 않고는 지탱할 수 없으며, 궁핍한 국가경제는 내부로부터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이라크의 선택도 석유자원의 수출 증대 이외에는 기대를 걸만한 수단이 별로 없는 상태이다.

두바이 27\$은 높은 가격이다.

지금까지 중동을 비롯하여 OPEC를 둘러싼 국제석유시장 정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의 유가가 OPEC가 만족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착륙 우려와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경제의 침체로 인해

세계석유수요 증가를 2% 이하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 OPEC의 감산영향이 다소 적게 나타날 공산이 크다.

게다가 비OPEC 석유수출국인 노르웨이, 멕시코, 러시아 등의 OPEC 동참의 태도가 예전같이 않아 OPEC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고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노르웨이는 유럽의 소비시장 중심에서 중동의 대유럽 석유수출시장의 경쟁지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멕시코 역시 이에 못지 않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계절적으로 볼 때 봄이 찾아오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석유수요는 하루 200만~300만배럴 줄어드는 계절에 처해있다. 물론, 수요가 줄어드는 폭보다 더 크게 OPEC가 감산하여 나간다면 유가는 작년 수준인 28\$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정치·경제적 시장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지난해보다는 보다 부드럽고, 급격한 변화가 시장여건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월 초의 강세요인인 재고부족, 기상악화, 이라크 수출부진, 샤론 이스라엘 수상 등장 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을 감안시 올해 유가는 지난해 보다 2\$이상 낮은 25\$이하에 형성되어 보다 긍정적으로 우리경제에 다가와 경제의 연착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두바이 유가 추이

